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뾰족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쾨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개역, 이사야 10:33~11:1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정은 물론,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린 사람들은 그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한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더라도 내 후손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런 소망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노동조건이 열악할 때에 “나는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방법은 극렬했을지라도 열악한 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열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후배,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희생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요? 비교적 우리는 좋은 곳에 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면 어느 정도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정도 되면 될까요? 미국에는 자살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노후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노르웨이나 스웨덴입니다. 안락한 나라들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선조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면 어느 정도 나아질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은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할 때가 있지요. 굳이 북한 아니라도 북음을 듣지 못한 채 아니 북음을 들어도 지하에서 숨어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굶어죽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기 전에 우리 위해서 고생했던 선조들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그 때에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채 지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먼 훗날에 있을 진짜 아름다운 그 세상을 위해서 입니다.

그 세상이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조금 나을 수 있는 세상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먼 훗날 있을 아름다운 세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드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던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좀 이상한지 제게 글자를 잘못 쓴 것 아니냐고 물었던 분도 계십니다. ‘누가 도끼의 간을 키웠는가?’ 맞습니다. “이거 도끼입니까, 톱입니까?” 하더라고요. 톱의 간을 키워서 뭐 할 거예요? 도끼가 간이 얼마나 커졌는지, 도끼가 설치고 다닌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웬 도끼인지 복습을 간단히 하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가하시게 됩니다. 비유컨대 벌목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 베고 났더니 나무 벨 때 켜던 도끼하고 톱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라서 나무를 다 베길로 알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쳤다. 예루살렘이 별 거나 말이죠. “예루살렘 나와 봐! 예루살렘에 신이 있다고? 나와 봐! 나같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나보다 총명한 자가 누구냐? 어느 나라고 간에 나한테 걸리면 견디나지를 못한다. 예루살렘? 버틸 수 있냐? 예루살렘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앗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변 모든 나라를 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도달합니다.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톱, 도끼에 지나지 않는데도 얼마나 교만하게 큰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아주 쉬운 일을 가리켜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죠? 실제로 먹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앗수르는 주변 나라 치는 것을 마치 등지에 버려져 있는 새알을 줍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떠벌립니다. ‘새알 줍듯이 한 알 한 알 주었지만 감히 내 앞에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지귀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예루살렘도 나와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었더니 도끼가 주인을 향하여서 대드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가할 때에 마음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그러면서 쳤단 말예요. 그랬는데 도끼마저 이 모양이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이 뒤집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말 안 듣고 그를 징계한다고 다른 민족을 좀 켜더니 이 민족마저도 말썽인 이런 상황이었습시다. 이런 현상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간 큰 도끼가 생깁니다. 이 간 큰 건방진 도끼가 교회를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소리를 질러 댁니다. 가끔 “교회가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장사꾼과 다를 게 뭐냐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난을 당할 때 앗수르가 왜 이렇게 기고만장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앗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도끼고 나는 나무를 찍는 자다. 너는 톱이고 나는 켜는 자다. 네가 막대기라면 나는 막대기를 드는 자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앗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33절과 34절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칼로 그 뾰뾰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별을 당하리라’ 자기가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모독하는 앗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앗수르의 산헤립이 군대 18만 5천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쌌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70만 되니까 18만 5천하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모독

하다가 하루 저녁에 전부 시체로 변해버린 사건이 37장에 나옵니다.

앗수르가 그렇게 건방진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을 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앗수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입니다. 감히 앗수르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은 앗수르가 철저히 배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도끼인줄 모르고 오히려 도끼를 든 주인에게 간 큰 소리를 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했던 앗수르는 나무가 완전히 배어지듯, 작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11장 1절을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앗수르는 작별을 당하여 완전히 배어져 버릴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싹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모략도 있고 지능도 있습니다. 이 싹이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싹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비유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말은 이새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왕이 출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건방진 소리를 해대는 앗수르는 싹쫓이 되어 사라지겠지만 오히려 앗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셨던 그 이스라엘은 그 날에 위대한 왕이 탄생해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새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의 아버지가 두 살이예요?” 하는 겁니다. 애들이 다윗은 잘 알면서 이새는 왜 잘 모르까요?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하려면 다윗왕의 가문에서...’ 이래야 빛이 날텐데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필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 왕의 출신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남들이 우러러 볼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위대한 왕이 탄생하겠지만 그 왕의 출신은 미천하고 그리 화려하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 봐야 그 줄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녀린 싹입니다. 그 싹이 위대한 왕으로 자라나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용비어천가 아시죠? 학교 다닐 때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죠. 태조 이성계가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분의 조상들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대 조상들까지 용에 비유해서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가급적이면 조상을 위대하고 화려하게 드러내려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위대한 왕은 이새의 뿌리에서 작은 싹처럼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대단한 가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싹이 나서 크게 결실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싹의 특징은, 2절에,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합니다. 작은 싹이 하나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이 싹이 자라나서 온전하게 결실하는 이유는 여호와와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몽고는 별로 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한 때 몽고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위력이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한 사람, 징기스칸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이 서고 이 왕이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는 나라를 제대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로마 역사를 훑어보다가 시이저나 아우구스투스의 역할을 보고 참 탄복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 로마를 그렇게 키운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세운 업적을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지요. 이 왕들이 세운 기초 위에 얼마나 태평스런 세월이 오래 유지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이 놀라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봅시다.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 나라의 통치대상은 빈핍한 자와

겸손한 자입니다. 빈핍한 자는 아시겠지만 겸손한 자가 조금 이상하죠? 겸손한 자의 본래 의미는 천하다는 뜻입니다. 영어에 겸손과 천하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자는 빈핍한 자와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이 누구를 상대로 정치합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를 위해서 정치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백성요? 법이 만들어지고 통치가 될 때에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스리는, 진정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이 됩니까? 4절 뒤편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은 전부 무력입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씀으로 다 되는 나라입니다.

오래 전입니다마는 참 골치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첫 날에 애를 하나 만났는데 예삿내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좋지 않은 일로 붙들려 왔는데 매를 많이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야, 너는 매 가지고는 인간 안되겠네?" 하니까 이놈이 씩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 저는 매는 겁 안 납니다."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매는 겁 안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로 하면 듣겠냐?" 그러니까 "말로는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애만은 매를 안 댔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데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어쩌나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주로 교련 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 혹은 체육 선생님들이 나가서 애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겁도 주곤 하는데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멀리서 지켜보니까 1학년짜리 그 놈이 3학년을 충동질해서 데모를 일으킨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그 애를 불렀습니다. "말로 하자, 이거 중지시켜라." 그 때문에 데모가 중지되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덩치 크고 무서운 선생님들이 아무리 공갈쳐도 꼼짝도 않던 녀석들이 조그마한 영어 선생님 한마디에 다 사라지더라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기억 중의 하나입니다. 개가 워낙 사고를 치고 덩치도 좋으니까 일단 생기면 얻어터지면서 살아왔는데 세상에 선생님이 "말로 하면 되겠느냐?"고 대해준 게 태어나고 처음입니다. "말로 하면 되겠느냐?"는 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로 하자, 일단 멈춰라, 뒷일은 내가 어떻게 해볼 게." 이랬는데 그 말을 들어 준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는 나라입니다.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가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착착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말씀만으로!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었어요. 아담이 범제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도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즉 위대한 왕이 출생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의 통치 기준은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나라요 성실하게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니 나오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실하게 백성을 위합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법률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자기 당에 불리하다 싶으면 빨리 처리해야 될 것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데서 온전하게 벗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위대한 왕이 출생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는 그런 나라와 달리 정말로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다른,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입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서 이 구절이 감동을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짙게 깔려있는 걸 쳐다 보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지요? 아름답지만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 놀지 마세요.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가서 많이 뒹굴면 걸리는 병 있지요?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잔디밭에 누웠다가 걸리는 병입니다. 잔디가 아름답다 싶어도 놀지 마세요. 함부로 누울 곳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별령 누웠다가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개똥이 그리 많은지요. 사진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잔디밭에 들어가 보면 개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촌 풍경을 멀리서 보면 전원풍경이라고 그러죠. 참 좋아 보이죠? “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멀리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보파리 싸고 들어가 보세요. 며칠이나 버틸런가. 농촌에 고추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 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힘들다는 건 압니다. 시골 애들이 가출하는 이유 중에 “고추 따기 싫어서요.”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추 따는 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시골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죠?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농촌에 가서 멋진 전원생활 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꿈 깨라는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아니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사진에 잘 나오는 평화로운 모습 있죠? 새가 날고 꽃이 피는 그 곳에 카메라를 확대시켜 들여다 보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자연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자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자연계의 현실입니다. 자연계만 그렇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도 생존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원래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했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 아래 놓여있는 세상입니다. 위대한 왕이 탄생하여 저주 아래 놓여 강한 놈은 잡아먹고 약한 놈은 잡아 먹혀야 하는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얘깁니다.

6, 7, 8절을 읽어보면 **‘해뿔도 상함도 없고 심지어 사자가 풀을 뜯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사자가 풀을 뜯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나라에서 사자는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탄생하면 원래대로 아니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땅이 사람과 분리되고 부부가 분리되고 짐승과 사람이 분리되던 모습이 위대한 왕의 탄생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표범에게 어린 염소는 맛있는 먹이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친구 사이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연만물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시킬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의 답이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진정 아름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란 말입니다. 염소가 이리와 같이 높고 어린 양이 표범이 함께 높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나라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기는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즐거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으면 참 불행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었다면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즐거운 그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런 현상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어릴 때 소풍간다 수학여행간다 그래서 그 전날 밤 잠 못 자고 설레던 날이 있었습니까? 그때 기분, 그런 흥분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인이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가슴이 떨리던 그 가슴 떨림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즐거움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가슴 떨리는 흥분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과학이 만들어 주는 세상은 한마디로 편리한 세상입니다. 편리한 세상입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 가슴 떨리는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얘기지만, 사람들의 머리가 계속 크니까 훗날 사람들이 진화해서 머리만 굽어지고 머리털도 좀 빠져버리고 손발은 조그마한 모습으로 그러놓기도 합니다.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다보니 손과 발을 놀리는 일이 없고 쓴다는 것은 머리뿐이니 머리만 굽어지고 머리털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은 편리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선의 세계를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상처럼 여겼던 신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신선의 나라는 놀고먹는 세상입니다. 신선은 뭐 합니까?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둡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이 됩니까? 인간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은 놀고먹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 그 가슴 떨리는 즐거움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것 잘 안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하실 때 이런 얘기 잘 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게 뭐고?” 많이 해 줬다는 애깁니다. 뭐 해 줬지요? “월급 타다가 한 푼도 축 안내고 당신에게 다 줬잖아!” 얼마나 큰일입니까? 남편이 “내가 안 해준 게 뭐고?”라고 할 만하죠.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해준 건 뭘데?”라는 겁니다. 서로가 뭔가 안 맞는 겁니다.

부인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돈만 갖다 주면 다냐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다 준 것은 전혀 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몇 번째 즐거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이 무조건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 경외를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좋은 향기를 맡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뜻이죠. 꽃밭에 가보면 가끔 향기나는 풀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코에 대어보면 향이 썩하게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향을 맡아보고는 “야

아!” 하는 이런 느낌을 호흡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갈 때도, 직장에서도, 이웃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기 맡듯이 의식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까?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에 와서 보니 징계하려고 쓰셨던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여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은 다시 싹을 틔워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들든 어렵든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결과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를 맞아야 했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기스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루어졌고 로마황제 몇 사람에 의해서 그 평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위대한 왕의 탄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항상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